

식민지 시대 여행 문화의 향유 실태와 서사적 수용 양상*

곽승미**

1. 서론
2. 여행의 제도화와 유행
 - 2-1. 제국의 전시공간으로서의 조선
 - 2-2. 철도와 신문의 기획으로서의 여행
3. 국외여행의 두 시선
 - 3-1. 서양 - '외부'의 응시
 - 3-2. 만주 - '내부'에의 꿈
4.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과 여행-현대인과 '죽쟁이'의 균열
5. 결론

국문요약

근대성의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여행문화가 일상에서 향유되는 실태와 서사화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여행은 일제에 의해 제도화됨으로써 일상화되었다. 일상의 영역에서 여행은 제국의 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취향으로서 유행되어 현대적인 삶의 지표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20년대부터 잡지에 대거 수록되는 서구 기행문은 근대적 주체의 시선을 통해 서구를 관찰하는 동시에 동양인이자 식민지주민으로서의 자기 확인 과정을 드러낸다. 여행은 서사화되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특성화기반조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는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그리고 타자로서의 자기를 확인하는 계기로서 전유된다. 이것은 근대적 삶을 일상으로 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제국 외부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딪치며 빚어낸 균열이다. 이러한 균열은 통속적 서사 안에서 만주의 심상을 통해 상상적으로 봉합되는 국면을 맞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부'와 '외부'가 만나게 되는 여행은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제어

여행, 기행문, 근대성, 식민지, 근대적 주체, 통속소설, 정체성

1. 서론

한국 근대문학은 여행으로부터 시작한다. 최초의 신소설이라 불리는 이인직의 『혈의누』는 옥련이 동경을 거쳐 '화성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이며, 홍행작 최찬식의 『귀의성』은 정임의 일본행, 영창의 '룬돈'행,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신혼여행이 흥미를 주는 소설이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칭하는 이광수의 『무정』 역시 형식의 평양행과 형식 일행의 기차 여행이 주된 서사이며, 염상섭의 「만세전」은 일본으로부터 배와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따라 서사가 진행된다. 여행이 한국 근대 초기에 주요한 테마로 자리잡게 된 것은, 여행이 바로 근대라는 새로운 시기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대의 형성은 여행으로부터 비롯된다. 우선 제1세계라 할 수 있는 서구인들의 여행은, 이질적인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의 수준을 넘어 자국의 영토 범위를 규정하고 확장함으로써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육체적 재현이다. 구미열강은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토를 '발견'해내었다. 이때 발견된 새로운 장소로서의 동양은 원래의 고유성을 잃고 대상화됨으로써 독특한 이국의 풍취를 부여받는다. 동양을 위시한 제3세계를 바라보는 서구인들의 시선은 자신의 문화가 잃어버린 원시성, 즉 과거에 대한 동경으로 흐른다. 이들이 '발견한' 새로운 공간은 근대 사회의 구조적 한계와 복잡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여기'를 반성하게 하는 "살아있는 화석"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서구인의 여행은 이와 다르다. 서구의 삶이 전지구적으로 공통된다는 상상을 유포함으로써 형성된 것이 근대성이라면, 비서구인은 근대인이 공유해야 한다고 상상되는 일상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계를 관찰하고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근대 초기 비서구인의 여행은 유학·시찰 등의 교육 여행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근대성의 수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여행이 이렇게 근대의 사회·문화적 제도이고, 기행문이 근대 서사의 한 축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²⁾들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기행문들에 대한 연구는 근대성의 수용이 서구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들 연구는 서구 여행 체험이 근대인으로서의 내면 형성에 작동하는 방식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대성 논의가 인식론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1) 낭왕, 이진형·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2004, 216-218쪽 참조.

2) 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 2004;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유학생 기행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2호, 2004;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24호, 2004; 우미영, 「시각장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 『어문연구』 32권 4호, 2004; 「서양 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 구성 방식」, 『여성문학연구』 12호, 2004; 차혜영,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면 형성경로」, 『국어국문학』 137호, 2004a;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현대문학의 연구』 24호, 2004b; 김중철, 「근대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 『우리말글』 33호, 2005.

집중되어 일상적 삶에서 형성되는 근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³⁾

그러나 1920년대부터 여행과 그에 대한 기행서사, 특히 국외여행에 대한 기록이 확산되고 의미화되는 일상의 맥락을 짚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일상적인 여행지로 각광받았던 온천, 해수욕장 등이나 산책을 중심으로 한 원족문화도 이국적인 취향⁴⁾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점과 외국이 현실적인 여행공간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행문이 꾸준히 게재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여행에 대한 관심은 외국에 대한 관심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본고는 일차적으로 여행이 조선에서 하나의 문화로 기획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기행서사와 허구적 서사를 통해 외국여행 경험이 전유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의 영역에서 형성되어가는 근대성의 맥락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3) 기행문이 아닌 소설에서의 여행의 의미에 착목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근대의 초기라 할 수 있는 개화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0호, 2003; 최기숙, 「교육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호, 2004; 광승미, 「외부의 동경과 '근대인' 되기」, 『근대의 첫 경험』, 이화여대출판부, 2006. 최근엔 1930년대 후반 만주가 우리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살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외곤, 「식민지 문학자의 만주체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4; 김려실,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호, 2004;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연구」, 『어문학』 86호, 2004; 이미립, 「<벽공무한>의 여행모티프와 유희적 노마드」, 『현대소설연구』 26호, 2005;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28호, 2005.

4) 당시 인천 만국공원, 원산 명사십리의 서양인 별장지대인 주을 온천 등은 “예기조벽”한 풍경들이 펼쳐지는 곳으로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서양인 별장지대 풍경」, 『삼천리』 6권 9호, 1934.9). 그리고 해수욕장 역시 “첨단적”인 “하이카라”라면 으레 가는 사치가 일종에 유행이 되었다. 해수욕장은 “부르조아 색기들의 유희시장”, “에로 100 퍼.센트”인 곳으로 “흰 양복 흰 모자 흰 구두에다가 말숙하가 차리고 거기에 의레이 부속물인 첨단덕 신녀성”을 “모시고” 가는 곳(이동원, 「여름의 환락경, 해수욕장의 에로그로」, 『별건곤』 53호, 1932. 7, 12쪽)이라고 비아냥댈 만큼 조선의 내부 현실과는 다른 이국적인 공간이었다.

2. 여행의 제도화와 유행

2-1. 제국의 전시공간으로서의 조선

식민지 조선에서 여행은 일차적으로 제국의 시선에 의해 기획되었다. 제1세계인 제국주의 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을 제1의 속국으로 간주하였고, 그에 따라 정치적·군사적으로 일본의 범주 안에 편입시키려 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외지, 즉 조선, 만주, 대만 등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단을 구성하였다. 1900년대부터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단이 조직되었고, 독일·러시아·미국·영국 등지에서 조직된 관광단이 일본에 이어 조선까지 방문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수가 급증하였다.⁵⁾ 서방의 국가들로 하여금 조선을 방문하게 한 것은 자신들이 조성하고 기획한 작은 일본과 야만적인 조선의 지방색을 대조시킴으로써 일본의 선진화를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일본은 자신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들을 국내외에 전시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자부심을, 대외적으로는 세력 확장을 과시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은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 특히 경성은 새롭게 조성되었다. 조선을 방문한 일본 관광단의 주요 여행지는 경성 내의 고궁이나 경주, 평양 등의 유적, 금강산 등의 자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건축한 경성역,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조선포텔, 경성우편국 등의 '양풍(洋風)' 건물이었다.⁶⁾ '강력한 제국'이라는 상상을 조선이라는 '작은 일본', '신내지(新內地)'를 돌아봄으로

5) 「관광 외인 증가」, 『황성신문』, 1909. 11. 16.

6) 경성을 대표하는 8대 명소로 용산역, 조선총독부, 남대문, 경성부청, 남산공원, 식물원, 경성역, 조선신궁을 꼽고 있다.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54-55쪽 사진 참고.

써 확인하는 것이다. 조선은 박람회와 일본 식민지관이었던 셈이다. 박람회는 기술의 발전을 국가 발전으로, 즉 제국의 확장이라는 길로 일체화시키면서 그 가운데 대중의 욕망을 끌어안았다.⁷⁾ 일본 '내지'인에게 조선 '외지'는 자신들이 조성한 꿈의 제국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었으며, '내지'와는 다른 조선이라는 '외지'의 고유한 품물과 습속은 이색적인 '구경거리'였던 셈이다.

아울러 일본은 정책적으로 조선인들의 '내지관광단'을 조직했다. 1900년대부터 1910년대 초까지 관광단 모집, 관광단의 결성, 출발, 도착 등의 기사가 많이 발견된다.⁸⁾ 정부의 고위 관리와 부인들로 구성된 이 관광단은 일본의 각 도시를 시찰하고 공진회, 박람회 등을 견학했다. 이 관광단 조성의 목적은 이른바 '내지'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의 식민지화를 설득하는 데 있었다. 식민 본국이 품는 세력 확장의 욕망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념적 형성에 의해 추진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직접적인 설득의 방법이 필요

7) 박람회와 제국주의의 결합이 처음 나타난 것은, 1851년 영국이 식민지와 지치령의 출품 전체를 영국관에 전시한 '런던 만국박람회'부터였다.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식민지를 철저하게 타자화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적·문화적 편견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인간전시였다. 이때 프랑스는 다수의 식민지 원주민을 박람회장에 데려와 박람회가 개최하는 동안 울타리가 둘러쳐진 식민지촌 안에서 생활시키고, 이를 전시하였다. 자기와는 다른 인종의 열등성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민족학적 실물시를 통해 '발견'하도록 추동한 셈이다(吉見俊哉, 이태문 역, 『박람회-근대의 시선』, 논형, 2004, 210-216쪽 참조). 일본 역시 1903년 오사카에서 열린 '내국권업박람회'에서 '학술인류관' 코너에 내지에 가까운 인종을 모아, 풍속기구생활의 모양 등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취지로 조선인 2명을 포함한 11 민족 32 명의 남녀를 일정한 구획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전시했다. 1907년 도쿄 '권업박람회'에서 역시 조선관 옆에 세운 수정관에서 '여러 사람에게 흥미를 북돋고자' 조선인 남녀 두 사람을 열은 황색 복장으로 배회시키기도 했다. 위의 책, 241-244쪽 참조.

8) 곽승미, 위의 글 참조.

9) E. Said,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02, 52쪽.

하다. 그 방법은 우선, 관념적인 지식의 형태로 지배의 논리를 담론화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논리는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형상을 통할 때 그 설득력이 더 커진다. 근대화 담론이 당시 당위적인 지식의 형태로 자리 잡았으므로, 그와 함께 근대화된 내지의 풍경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조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시각적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내지관광단' 조성의 목적이었던 셈이다. 조선에 여행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이들 관광단의 여행은 순수한 여가로서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2-2. 철도와 신문의 기획으로서의 여행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본화된 근대성을 수용하도록 강제되는 가운데, 조선에서 근대의 신호탄이라 여겨진 것은 철도였다. 철도는 초기 군사이동의 수단이었으나 그로 인해 공간 이동이 수월해진 것 또한 사실이어서, 여행을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물질적 바탕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대대적으로 조성된 많은 관광지와 그것에 대한 정보성 기사들은 '여가'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상에서 여행 경험의 확대와 함께 신문, 잡지에는 기행문들이 많이 실린다. 이들 기행문은 원주, 산보의 경험부터 외국 체험까지 그 폭이 넓고 양 또한 많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실제 여가로서의 여행이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은 현실에서 외국, 특히 서양 기행문이 대거 실린다는 점이다. 이는 화륜선,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그와 관련된 지리학 등¹⁰⁾을 통해 외국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문명개화를 설득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했던 근대 초기의 분위기와도 닿아 있다.

10) 이경훈, 『오빠의 탄생-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120쪽.

이들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정보를 통해 전달되는 여행은 일종의 구경거리로 변형된다. 일상적인 삶의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일상이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행하는 삶은 현대적인 것의 지표가 된다.¹¹⁾ 자신이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여행이라는 사건은, 독자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문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여행의 상상은 실제 여행의 경험을 추동한다. 여행은 이에 따라 그 이전 시대의 여행과 질적·양적인 변화를 보인다. 과거에는 극소수 상위 계층에게만 가능했던 여행이 사회적·제도적 체제의 정비로 더욱 확산되고 유행됨으로써 대중적 소비행위로서 향유되었다.

1920년대에는 “명수산을 유람하는 풍조가 유행하”여 “자연미에 대하여 일반 사회의 취미가 향상”¹²⁾되었다. 봄에는 단체 상춘객으로 인해 여객 수가 부쩍 늘기도 했고, 연말연시를 맞아 단체여행객을 모집하는 등 여행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여행객의 급증에 따라 여행 “시즌”을 앞두고 대륙관광 “루트”의 개발과 선전, 조선 내 유람 승차권 발매 등에 관한 안건으로 여행 안내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여행이 산업화되고 여행이 취향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여행이 더욱 빈번히 이루어졌음은 1930년대 후반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체제의 돌입으로 일상이 피폐해진 시기에 여행제한, 여행자숙 권고의 기사들이 실리는 같은 지면에 ‘기차여행의 명량화’, ‘공습 하의 기차여행법’ 등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국과 상관없이 여행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여행객의 급증에 따라 1930년대에 이르면 ‘세판 투리스트 쉼료’(일본 여행협회가 일반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선에도 지점을 두어 조선뿐

11) V. R. Schwartz, 『구경꾼의 탄생』, 노명우·박성일 역, 마티, 2006, 64쪽 참조.
 12) 문일평, 「북한의 일일」, 『개벽』 16, 1921. 10.

만 아니라 일본, 만주, 구라과 지역의 승차권과 침대권, 배표를 발매하고, 여행상해보험도 취급했다.¹³⁾ 이와 함께 여행안내서도 발간되었다. 여행 안내서는 상공회의소, 각 도청과 철도국¹⁴⁾이 중심이 되어 편집, 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공적인 목적의 여행안내서 이외에도 조선의 풍물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여행안내서¹⁵⁾ 역시 발행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어로만 발행되었으나, 조선인 여행객 수가 증가하자 '조선 털도려행 안내사'를 설립하고 '조선문'으로 된 여행안내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기에 이른다.¹⁶⁾

현재 패키지여행 개념의 단체여행은 신문사나 각 지역 철도역에서 주

-
- 13) '일본여행협회'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사무소를 설치한다. 북경, 천진, 청도 등에 이어 제남, 장기, 석가장 등에 안내소를 신설하고 만철, 조선철도, 대관상선, 북일본기선, 일본해기선 등 선차권(船車券)을 대행해서 판매하고, 기차 여행을 알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사업을 팽창할 필요를 느껴 기구를 확충하고, 화신백화점, 조선호텔과 조지아(丁子屋) 백화점에 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또한 평양, 부산 등의 도시에는 관광협회를 설치했다.
- 14) 『조선철도선로안내』, 1912; 『경원철도안내』, 1914; 『호남선선로안내』, 1914; 『조선철도여행안내』, 1915; 『만철여행안내』, 1924; 『연선안내』, 1927; 『경도선안내』, 1934 ; 『봉산철로안내』, 1934.
- 15) 岡本喜一, 『개성안내기』, 개성신문사, 1911; 靑柳綱太郎, 『최근 경성안내기 조선연구회』, 1915; 久納重吉 편, 『동래안내』, 구남중길, 1917; 조선경성감리국 편, 『조선철도여행안내』, 대판옥호서점, 1918; 조선척식자료조사회, 『사계의 자연』, 1921; 松本武正, 『금강산탐승안내』, 구옥상점, 1926; 삼혜학교 편, 『락랑고적안내』, 사립삼혜학교, 1928; 조선매일신문사 편, 『대경성』, 1929; 小西榮三郎 편, 『최신 조선만주지나안내』, 성산각, 1930; 경주고적보존회, 『경주고적안내』, 경주고적보존회, 1934; 개성부립박물관 편, 『개성부립박물관안내』, 개성부립박물관, 1936; 부산관광협회 편, 『부산안내』, 1936 笹沼末雄 편, 『함흥안내명승사진첩』, 대판옥호서점, 1936.
- 16) 「조선철도여행안내」, 『동아일보』, 1923.3.27. 이 기사에 따르면 각 철도역에 일본어로 된 여행안내서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조선어로 된 여행안내서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인 여행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행안내서가 '신간소개' 코너를 통해 꾸준히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아 안내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관했다.¹⁷⁾ 철도역이 여행안내서를 간행하고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등 여행의 제도화·산업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통해, 여행이 지역의 네트워크화 과정 속에서 일반화된 근대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차역은 직선적으로 이어진 전 선로를 분절하는 하나의 단위이다. 이는 그 역이 세워진 도시의 공간정보다는 철로 이동의 시간과 공간의 편의성에 따라 임의로 만들어진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역 단위로 이어지는 선로 위에서 각 지역은 고유성을 상실하고,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기능적 공간으로 변화한다. 지역 간 이동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지면서 문화의 교류와 상호침투가 활발해졌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위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일원화되었다.¹⁸⁾ 이제 여행은 공유하는 것이라 믿어지는 문화상과 상대적으로 다른 차이를 '구경'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기차역은 자신들의 도시를 광고해서 상품으로 소비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기차는 북쪽으로 이어져 만주,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시발점이기도 했다. 기차는 근대 문명의 시간적 흐름을 공간화한 매체가 되며, 조선은 조선의 미래를 보기 위해 유럽으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만주로 향하는 것이다. 결국 기차 선로를 따라 떠나는 여행은 일상의 차원에서 여가 혹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간의 이질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국의 시선에 의해 기획된 형태로서 출발한 기차와 여행은 제국의 의도와 달리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함으로써 제국의 틈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17) '썬펜, 투-리스트, 쉼로' 주최의 대만 시찰단, 평양 여행구락부 주최의 대만시찰단, 전주역과 대전역 주최의 구주시찰단, 군산역·금천역·목포역 주최의 별부(別府) 시찰단 모집 광고를 내고 있다. 「연말연시의 여행」, 『동아일보』, 1932. 12. 20.
18)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33쪽.

3. 국외 여행의 두 시선

3-1. 서양 - '외부'의 응시

1920년대에 들어서면 상상적인 기행이나 각 나라에 대한 정보성 기사 보다는 그 당시 희귀한 경험이었을 유학생들의 실제 체험이 담긴 기행문이 대거 실린다.¹⁹⁾ 실제 유학대상국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같은 권역이라고 이해되는 일본보다는 근대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서구 기행문이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 이 시기 유럽여행기의 내용은 현재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유럽 여행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행로로 이동하며, 각 도시에서 보는 풍물과 그것에 대한 느낌 역시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익숙함은 개화기 이래 꾸준히 주입되어 온 서양에 대한 갖가지 정보와 그것으로부터 유발된 환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인상은 직접적인 시각적 감각에 의해 포착된 형상으로부터 비롯된 감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데 반해 이미지는 이차적 지식을 토대로 상상을 통해서 획득된다.²⁰⁾ 당시 서구 세계에 진입한 지식인들에게 서양은 일본 유학 경험과 서적 등 갖가지 풍문들로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19)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행문은 박승철, 허헌, 정석태, 나혜석의 것이다. 박승철은 와세다대학 사학·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21년 12월 8일 베를린으로 떠나 1925년에 귀국했다.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은 딸과 함께 1926년 5월 30일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1927년 5월 12일 귀국했다. 정석태는 1923년부터 1926년까지 베를린에서 세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의학박사이다.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1927년 6월부터 1929년 2월까지 유럽, 미국을 여행했다. 유럽으로 가는 행로는 두 가지였다. 우선 육로는 나혜석의 글을 볼 때, '안동-하얼빈-만주리-시베리아-모스크바-파란-백령-파리'로 이어지는 철도여행이었다. 그리고 해로는 박승철, 정석태의 행로를 따라가 보면, 일본 고베(新戶)에서 우편선 기노마루(吉野丸)를 타고 상해-홍콩-싱가폴-인도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마르세이유로 들어가는 길이다. 미국은 요코하마(橫濱)에서 다이요마루(太陽丸)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정박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입항한다.

20) 낭왕, 앞의 책, 212쪽.

테면 파리는 처음 봐서는 모르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²¹⁾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의 시선을 이미 내면 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을 여행하는 조선인들에게 외국은 일차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의 체험으로 다가온다. "각국 아동들이 자국어를 말하면서 노는 것을 가장 흥미있게" 보기도 하고, "영어로 무뎠더니 그 순사가 중국말로 차부에게 일러주"²²⁾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외국어를 좀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아직 수집어서" "말을 거러볼 용기조차"²³⁾없어 "반병어리 소리로 우물쭈물하다가" "만국공통어를 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아해우로 한참 동안이나 훑내 내닛가 그제서야 알아"²⁴⁾ 듣기도 한다. 외국 경험 없이 상상적으로 씌어진 신소설에서 언어의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이질적인 언어의 혼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은 단순히 '차이'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일종의 위계가 되어 서양인들을 상위에 그렇지 않은 인종은 하위에 두는 것이다. "말이 이상하고 생긴 주제들이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곧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하게 보았는지"²⁵⁾를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방인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인들이 "각국인을 만히 보아나서" "요리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라도 쳐다보는 법도 업스며, 웃지도 안코, 더욱이 스트룬 붙어 단자를 한 자식 말하것마는

21) 나혜석, 「꽃의 파리행」, 『삼천리』 5권 4호, 1933. 4, 80쪽.

22) 박승철, 「독일가는 길에 1」, 『개벽』 21호, 1922. 3, 73-74쪽.

23) 허헌, 「태평양의 노도 차고 황금의 나라 미국으로!」, 『삼천리』 1호, 1929. 6, 7쪽.

24) 정석태, 「양행중 잠관잡감」, 『별건곤』 1, 1926. 11, 69-71쪽.

25) 정석태, 앞의 글, 66쪽.

당초에 죽음도 기색²⁶⁾이 없음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위축된 심리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삼아 자신을 '응시'함으로써 비롯된다. 이러한 '응시'는 같은 동양인을 볼 때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양인을 보고 느끼는 동정은 조선인 자신에 대한 감정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빈민 만흔 것은 참으로 놀났나이다. 도처에 걸인이요 빈민이더이다. 그래 모우(某友)는 중국은 거지세계라까지도 말하더이다. 가장 불상한 것은 중국인이라 아니 할 수 업더이다. 인도인 순사에게 몽둥이로 매 맞는 것을 보면 이국인인 나로서도 분하더이다. …(중략)… 참으로 동병상련인지는 몰나도 중국인과 마래(馬來)인이 불상하더이다.²⁷⁾

언제나 설음을 받는 사람은 동양인이외다. 구주에 가나 미주에 가나 어딴을 가나 일양으로 동양인 하면, 자기네들 보담 열등인인 줄로 아는 이 천지에 잇서서 더욱 조선인이라면 성명이 업대도 과언이 안이외다. 덕분에 안색이 높고 모발이 검으닛가는 동양인 이라는 칭호하에 들기는 들지마는 제법한 백인종과 가튼 대우를 맞지 못하나이다.²⁸⁾

당시에 미국, 유럽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그들은 조선 내에서 '근대인' 즉 '세계인'을 자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로 진입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그것도 열등한 이방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차이 속에서 "꼳다운 서울 파리는 내게는 근심의 서울일 뿐²⁹⁾"이라고 자조하게 된다. 조선인은 이른바 내선일체에 의해 국외를

26) 박승철, 「파리와 백립」, 『개벽』 24호, 1922.6, 59쪽.

27) 박승철, 앞의 글, 1922.3, 74-76쪽.

28) 박승철, 「우리가 외국에서 보고 가장 경탄한 것, 새 조선 사람의 본받고 심혼 일들, 영국에서 사대경탄」, 『별건곤』 7호, 1927.7, 54쪽.

29) 정석태, 앞의 글, 71쪽.

여행할 때 일본여권을 가지고 다니며, 일본어로 말하고, 각지에 퍼져 있는 일본여관에서 일본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며 회포를 푸는 등, 준일본인으로서 여행한다. 일본이라는 국가정체성이 불편함을 주지 않기에 이에 대한 첨예한 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³⁰⁾ 그러나 유럽으로 나아가면 조선인의 처지는 서양/동양의 위계에서 아랫자리를 차지하며 더 나아가 일본/조선의 위계에서 다시 아랫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체적인 위치는 흐릿해져버린다. 이때 그들은 일본과 조선을 동일한 자리에 놓으며 인종 차별에 공분한다.

그러나 1920년대에 주로 씌어진 이들 기행문에서는 서양에 대한 추종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프랑스 한 식당이 흑인을 몰아낸 미국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당한 것을 목격하고서 “불국은 참으로 사랑스럽다. 정이 든다. 나도 할 수만 잇스면 이곳서 일평생을 지내고”³¹⁾ 싶다고 감탄하는 것은 이로부터 연유한다. 인종차별의 경험, 혹은 이방인의 열등감이 있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례를 일반화함으로써 서양의 품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서양은 절대선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자리를 비울 때 가방을 놓고 나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본국 신문의 3면 기사들을 회상하고 얼굴이 붉고 말었다”³²⁾고 고백하는 것에서 문명 간의 열등감이 윤리의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서양은 더 격상한다.

인생의 최대 욕망은 다지(多知)에 잇스며, 다지는 다견에 잇고, 다

30) 차혜영은 동일한 국민국가의 경계, 즉 일본이라는 국가와 세계체계 내에서 이들의 공식적 정체성이 일본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은폐를 통해 식민지 근대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차혜영, 앞의 글, 2004a, 참조.

31) 정석태, 앞의 글, 75쪽.

32) 박승철, 「북구열국견문기」, 『개벽』 43호, 1924. 1, 65쪽.

견은 세계를 편견(遍見)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럼으로 나는 인생의 최대 욕망은 세계를 보고 심취하는 세계만유에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의미에 있어서 본국인사에게 세계만유를 권하니, 이것이 개인의 욕망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살림을 보아서 우리 살림을 고치는 데 불소한 이익이 있는 까닭이다. 기간은 약 10개월, 여비는 12,000원으로 구미 10개국을 볼 수 있나니, 이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나, 구미를 본 후에 비로소 본국에 안저 상상하든 것 보담, 여러 가지 점이 다른 것을 알 것이다.³³⁾

서양과 비교하여 조선은 언제나 열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번 여행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서양은, "아모리 조선수부이니 명망가이니 하여도 조선 내지에서는 전체상으로 이러한 호강을 하는 사람은 업슬 것"³⁴⁾을 안타깝게 여길 만큼 경제적·문화적·도덕적으로 선진한 나라이다. 그렇기에 다시 돌아온 일본에서 "구미경색에 비"해 "기분이 적고 청아하고 추려(佳麗)"함을 느끼고, 오랜 외유 끝에 돌아온 고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전도는 언어케 전개하라는"³⁵⁾지 두려움을 느낀다. 제국의 내부를 경험하고 온 이들에게 조선이 오히려 낯선, 그래서 두려운 세계이다. '서양/동양', '제국/식민지'라는 구도 속에서 종종적으로 타자화되고 주변화된 외부인의 시각이 아닌 내부의 시각으로 내부와 외부를 바라봄으로써 이질적인 외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망각되고 서양 내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서구기행문에서 '내부'의 시선이 전면화되지만 언제나 자신을 응시하는 외부의 시선이 함께 자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을 범연하게 받아들고 감탄하면서 내부인으로 행세하려 하면서도, 자신들이 외면

33) 박승철, 「툰돈구경」, 『개벽』 56호, 1925. 2, 71쪽.

34) 박승철, 「과란·화란·백이의를 여행하고서」, 『개벽』 36호, 1923. 6, 46쪽.

35) 나혜석, 「태평양건너서」, 『삼천리』 6권 9호, 1934. 9, 169쪽.

하러 한 그 외부의 감각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헤이그에 들르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헤이그는 당시 조선인에게 망국과 저항의 심상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으로, 헤이그에서는 모두 조선의 과거와 현재를 떠올린다. 조선의 지식인은 동양인임을 식민지 주민임을 망각하려 하지만, 폴란드, 헤이그,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어김없이 망국인 즉 가장 극적인 외부의 내면이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조선을 타방으로 느끼면서 자신은 다시 서양 내부의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근대 지식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하며 떠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심과 주변을 맴돌며 배회하는 내면이 식민지 조선의 정체성일 것이다.

3-2. 만주 - '내부'에의 꿈

1930년대 후반 만주 기행은 유럽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경, 하얼빈 등은 경성보다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유럽과 가깝다. 그러나 이 도시들을 여행하는 조선인들의 태도는 유럽에서와 확연히 다르다. 만주의 경우 '선진국'의 여행이나 새로 확보된 시간과 공간인식에 따른 자연이나 과거의 발견과는 달리, 식민주의자의 의식이 개입된다.³⁶⁾ 만주는 공식적으로 여행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동일권역으로 여겨진다.³⁷⁾ 만주를 여행하면서 조선인은 중국인과 구별되는 조선인의 위치를 표나게 의식하고 있다. "만주국이 건립되면서부터 「오족협

36) 서경석, 앞의 글, 344쪽.

37)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1907년에 이미 복수여권이 허용되는 지역이 생겼고(『관보』 3760, 1907. 5. 8), 여행증명을 폐지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여, 결국 1922년 12월 15일자로 일본이나 만주에 한하여 여행증명서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화(五族協和)라는 신술어가 생겼"고, "지나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신술어가 또 하나 생"38)겼다는 것은, "만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재만동포의 안위를 염려하고 또한 원동(遠東)의 장래를 주시"39)하면서 만주국을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상정하게끔 한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조선인에게 내지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서양을 떠돌며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인종적 열등감을 동양의 세력화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망을 품게 한다. 만주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종의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된 것이다.40) 만주는 자신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만주의 실상은 "일선만로(日鮮滿露)의 환락장"41)이며, 조선동포의 참상이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빈민들에게 이써 과연 만주는 새 생활의 이상향인가? 혈육은 조선의 젊은 룬펜들이 적수공권으로 뛰어드러와도 살 수 있는 곳인가?"42)라고 자문한다. 결국 만주에서 느끼는 것은 "일본의 힘이 크고나 하는 생각"이고, 일본이 "동아의 안정 세력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느낌은 "시가는 현대 도시의 면목이 뚜렷하고 거리의 색채와 기분이 일본적이요 시설과 규모가 일본 내지의 연장"43)이라는 데서 도출된다.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만주의 꿈은 실상 일본이라는 '일등국가'를 망각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조선인이 만주에서 꿈을 품는 것은 결국 "조선인보다 더 천대할 청인이 무수하니까 청인을 스려하는 심정으로 조선인에

38) 신흥우, 「서백리아(西伯利亞)의 횡단」, 『삼천리』 12권 9호, 1940. 10, 101쪽.
 39) 임원근, 「만주국과 조선인 장래, 만주국기행(2)」, 『삼천리』 5권 1호, 1933. 1, 53쪽.
 40) 서경석, 앞의 글, 342쪽.
 41) 향민생, 「만주견문록」, 『신인문학』 2권 6호, 1935. 8, 124쪽.
 42) 향민생, 128쪽.
 43) 금삼무원, 「만주여행기 2」, 『시조』 30권 11호, 1940, 11, 32쪽.

게 좀 호의를 두는 것⁴⁴⁾일 뿐이다. 이렇게 만주국조차도 자아의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여행이 제국의 기획에 의해 구성되어 제도화되지만, 실제 국외여행의 체험은 제도의 기획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틈을 노출시킨다. 실제 여행이 현대적 삶의 지표로서 인식되었다는 점은 비밀상적인 해외여행기가 앞다퉈 실렸던 사실을 설명해준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밖으로 나아갔을 때 실제 맞닥뜨리는 현실은 아직 근대인, 세계인이 되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노출시킨다. 이들은 서구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지만, 이들은 동양인으로서, 식민지주민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하게 된다. 내부에 속하지 못하는 외부인의 위치를 극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비밀상적 공간인 서구 기행문보다는 만주기행문이 대거 실림으로써 그 공간의 장악을 통해 스스로 내부, 주체가 되려는 욕망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게 된다.

유럽이 그들의 '과거'를 통해 이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해준다면, 아직 미개발된 만주는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미래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만주는 제국이 자신의 식민지를 보듯 미개발된 원시적 영역이며, 조선의 과거인 것이다. 만주에서 조선인은 일본에 이은 '이등국민'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심, 즉 내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인 것이다. 내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눈으로 응시함으로써 분열되던 조선인은 만주에서 이 분열을 메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주를 '왕도낙토(王道樂土)'로 선전함으로써 괴뢰국가 만주국을 채울 인적 토대로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했던 일제의 정책이 있음⁴⁵⁾을 의도적으로 망각하려 한 결과였다.

44) 김원벽, 「만주여행기」, 『신생활』, 1922. 9, 99쪽.

45) 김려실, 앞의 글, 400쪽.

4.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과 여행 - '현대인'과 '쪽쟁이'의 균열

식민지 조선에서 자아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자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계체계 내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은 여행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여행은 균열된 식민지인의 혼란과 그것의 상상적 해결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기행문에서 노출된 균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소위 통속소설이 떠맡고 있는 것은, 재현해야 할 현실과 의미화 사이의 간극⁴⁶⁾을 애정갈등이나 갈등해결의 도식성과 낙관성 등 통속적 관습을 통해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허구적 서사 특히 통속서사에서는 한편으로는 '여행'을 아예 이체성의 기표로서 배치함으로써 현실의 문맥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통속서사 특유의 낙관성을 통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로서 '2차 세계'를 상상해낸다.

우선, 여행이 하나의 취향, 소비행위가 된 데에는 서구적인 것에 대한 경도가 내재해 있고, 그에 따라 해외여행이 현대적 취향을 자극하고 선망하게 하는 주요 소재가 된다. 소설에서 여행 역시 그러한 기능을 일차적으로 떠맡는다. 즉 이 시기 서사에서 여행은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이른바 통속소설에는 여행이 주요한 모티브로 등장하거나, 이른바 모던한 '현대인'에게 여행 경험이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박계주의 『순애보』(1939)는 원산해수욕장의 이국적 풍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에서의 낭만적 사랑, 기차역에서의 운명적 엇갈림, 간도의 생활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방인근의 『방랑의 가인』(1933)은 평양행의 눈 내리는 기차역에서의 낭만적 사랑, 육로와 해로로 이어지는 국제도시 상해, 유럽의 여정과 이태리

46) P. Brooks,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and the Mode of Excess*, N.Y: Bolumbia Univ. Press, 1984, 101쪽.

의 생활,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1939)은 배천온천과 만주행, 이효석의 『벽공무한』(1940)은 하얼빈행 기차역에서 출발하여 하얼빈에서 러시아 여인과의 사랑이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

이들 소설의 인물들의 생활은 상류사회의 화려함, 이국적인 문물이나 기호, 취향 등으로 채워지고, 서술자는 이것들을 세세하게 묘사한다. 일상의 세세한 묘사 혹은 제시는 통속소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정보는 서사의 전개상 꼭 필요하지 않은 과잉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의 요소로 부각된다. 일상과 동떨어진 세계, 즉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이국적인 물건이나 풍습, 화려한 생활양식 등을 매혹적으로 묘사하여 결국 대중의 실제 생활이 아닌 대중들의 상상적인 욕망을 그려, 아직 드문 근대인의 생활양식을 공공연히 선망하게 한다.⁴⁷⁾ 일단 그러한 세계에 이입된 독자들은 실제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도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허황되지만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이국적 기호는 전통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즉 전세계적인 생활양식이 들어왔다는 풍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소재는 여행이다. 특히 『방랑의 가인』의 경우는 해외기행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해, 홍콩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자세한 행로가 그대로 노출되며, 각 공간에서의 이국적 풍물들을 그대로 제시한다. 이때 외국은 실체라기보다는 상상에 의한 풍경이며, 특정한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제공해주는 기호이다. 이국에서의 사랑은 이국적이기에 낭만적인 것이다.

둘째, 만주라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하여 1930년대 후반 현

47) 각 소설 내의 이국적 일상 기호들에 대한 설명은 곽승미,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론」, 『이화어문논집』, 2000; 곽승미, 「새로움에 대한 선망과 공포의 불균형」, 『대중서사연구』, 2003; 곽승미, 「관계의 미학으로서의 통속성」, 『현대소설연구』, 2004, 참조.

실에 대한 인식과 그 상상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때서 만주는 서사 내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다.

『사랑의 수족관』의 경우 김광호와 이경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공간으로서 만주가 등장한다. 만주는 서사의 주요한 흐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김광호의 내면을 읽게 해주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김광호는 모든 것을 회의하는 인물이고, 이경희는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려는 현실주의자이다. 김광호의 회의주의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고 행동 방향을 정할 수 없는 혼란된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의 회의적 태도는 연애관계에서도 지속된다. 이경희와의 사랑을 개연성 있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의적 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태도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만주이다.

만주에서 이경희에게 보낸 김광호의 편지는 만주와 세계체제 내에서의 조선 지식인의 위치에 대한 관념을 드러낸다. 만주는 새로운 개발의 땅으로서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세계를 목도하게 해주는 공간이다. 김광호는 전체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현실 속에 섞이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돌지만, 만주에서 ‘토목기사’라는 현대적 직업을 통해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발견하게 된다. 김광호는 기술을 통해 만주라는 땅을 새로이 ‘발견하고’ 기술자의 가치중립적 세계관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이경희와의 결합 역시 가능해진다. 이러한 김광호의 의식은 이경희의 현실주의적 실천, 즉 “최소한도의 선(善)”의 지향과 결합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 광기어린 폭력적 전체주의 체제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때 만주는 기술 우위의 세계로서, 기술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라도 지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됨으로써 중심인물들의 ‘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댄스를 하고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감

상하는 세련되고 서구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반복하여 “현대인”임을 강조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벽공무한』에서의 만주의 심상은 다르다. 서사의 초반 만주는 기회와 행운의 땅이다. 일마가 교향악단을 유치하여 문화사업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땅이고, 만주에서 유민채표가 당첨되고 경마에서 1등 배당금을 받는 등 실연의 경험과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고민하던 처지를 일신하게 되는 기회의 공간이다. 만주는 이질적인 언어와 이질적인 민족이 혼재해 있는, 중심과 주변이 없는 땅으로서, 이 땅에서는 어떤 민족의 이질성도 도드라지지 않는다. 만주는 “북국의 정서” 속에서 “열정의 노예”가 되는 자유의 공간이며, “할빈의 한복판에 백주에 영화의 한 토막”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공간이다.

그런데 사실상 하얼빈에서 일마가 교류하는 인물들은 아편상, 댄스홀의 댄서, 아편쟁이, 즉 “쪽쟁이”들이다. 일마는 그 “쪽쟁이”들과 섞여 자유를 느낀다. 서구적 삶을 일상으로 하고 교육을 통해 서구적 지식을 습득하고 서구적 취향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전체 세계 체계 속에서 또 조선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들은 “쪽쟁이”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만주는 내부에 편입되지 못한 타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기에 만주는 ‘내부’의 시선으로 재단되는 외부가 아니라, 자신이 외부임을 표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할빈은 이체성의 기표로서 자리하지만, ‘외부’임을 그 자체로 인정하게 하는 공간인 것이다.

결국 러시아 댄서 나아자와 피식민국의 문화사업가 일마의 결합은 “쪽쟁이”들, 즉 중심에서 배제된 타자들 간의 결합이다. 이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배경은 음악과 댄스라는 서구적 취향과 나아자의 백색 외모이다. 일마와 클럽 댄서 나아자와 사랑하게 되는 감정의 과정이 충분히

개연성 있기 서사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녀의 흰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 감동하고 있다. 지식인이자 사업가인 일마가 댄서 나아자와 결합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녀의 백색 외모인 것이다. 그리고 서양인 나아자 역시 일마와 결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녀의 불우한 처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마의 '돈'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닌 결핍 요소를 상대방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완전한 하나가 된다. 그 완전한 하나의 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극단적인 것으로,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의 주민, 혹은 세계인이다. 이들 간의 결합은 어떤 열등감도 필요치 않은 것이고, 이것이 곧 만주의 심상과 일치한다. 자아의 균열이 '만주'라는 '신개지(新開地)'에서 타자로서의 자기 확인과 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상상적으로 봉합되는 것이다.

이때 타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은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다. 이들은 서구식 주택에서 음악과 댄스를 즐기고 서양식 파티를 열며, 서양의 부부상은 연출하며 산다. 이는 근대적 세계체계의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계는 여전히 중심을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점을 드러낸다. 서양적인 삶의 양식, 즉 서양에서부터 비롯되어 전세계화된 일상으로서의 근대성은 타자로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요건인 것이다.

5. 결론

승경(勝景)을 완상하는, 혹은 상국(上國)을 관광하고 주변국을 시찰하는 전통적 의미의 여행은 근대에 들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경치와 내면이 합일되어 정신의 고양을 체험하거나 각 지역의 고유성을

즐기는 경험의 진정성 대신, 제도화·산업화된 틀 속에서 일종의 유행으로서 향유된다. 일상의 영역에서 여행은 제국의 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취향으로서 유행되어 현대적인 삶의 지표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20년대부터 잡지에 대거 수록되는 서구 기행문은 근대적 주체의 시선을 통해 서구를 관찰하는 동시에 동양인이자 식민지주민으로서의 자기 확인 과정을 드러낸다. 근대인이자 세계인으로 자처하지만, 서양에서 자신들은 서양/동양의 위계에서도 일본/조선의 위계에서도 결코 중심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조선을 타방으로 느끼면서 자신은 다시 서양 내부의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근대 지식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하며 떠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심과 주변을 맴돌며 배회하는 내면이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일 것이다.

여행을 주요 모티프로 하는 소설에서는 이러한 균열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새로움으로서 수입된 근대적인 것들로 인해 서양은 자연스럽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심상은 소설에서 그대로 수용된다. 이에 따라 신소설에서부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스케일의 세계 여행이 그려진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설 속에 그려지는 해외여행지가 점차 현실화된다. 그럼으로써 현실적인 여행공간에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 욕망이란, 근대적 삶을 일상으로 하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제국 외부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딪치며 빚어낸 균열의 봉합이다. '내부'와 '외부'가 만나게 되는 여행은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근대성은 서양과의 대조를 통해 서양을 우위에 두면서 스스로를 타자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참고문헌

자료

『매일신보』, 『황성신문』, 『경남신문』, 『동아일보』, 『개벽』, 『별건곤』, 『삼천리』

1) 기행문

- 박승철, 「독일 가는 길에」 1-3, 『개벽』 21호, 1922. 3-5
_____, 「파리와 백림」, 『개벽』 24호, 1922. 6.
_____, 「독일 지방의 2주간」, 『개벽』 26호, 1922. 8.
_____, 「고 「라텐아우」 국장 당일의 백림」, 『개벽』 27호, 1922. 9.
_____, 「파란 화란 백이의를 여행하고서」, 『개벽』 36호, 1923. 6.
_____, 「북구열국견문기」, 『개벽』 43호, 1924. 1.
_____, 「남구.빨간 반도.기타 열국을 력유하고」, 『개벽』 52호, 1924. 10.
_____, 「희랍. 토이기. 오지리를 보던 실기」, 『개벽』 53호, 1924. 11.
_____, 「륜돈구경」, 『개벽』 56호, 1925. 2.
_____, 「우리가 외국에서 보고 가장 경탄한 것, 새 조선 사람의 본밧고 심흔 일들, 영국에서 사대경탄」, 『별건곤』 7호, 1927. 7.
_____, 「외국에 가서 생각나든 조선 것-음식, 산수, 인정」, 『별건곤』 12·13호, 1928. 5.
허헌, 「동서 12제국을 보고 와서」, 『별건곤』 7호, 1927. 7.
_____, 「태평양의 노도 차고 황금의 나라 미국으로!」, 『삼천리』 1호, 1929.6.
_____, 「꽃의 「바리웃드」 를 보고, 다시 태서양 건너 애란으로!」, 『삼천리』 2호, 1929. 9.
_____, 「부활하는 애란과 영길리의 자태」, 『삼천리』 3호, 1929. 11.
정석태, 「양행중 잠관잠감」, 『별건곤』 1호, 1926. 11.
_____, 「불란서파리구경. 보는 것마다 세계진물」, 『별건곤』 2호, 1926. 12.
_____, 「독일 백림의 첫 생활, 파리로부터 백림에」, 『별건곤』 5호, 1927. 3.
_____, 「저들의 청춘! 각국의 청춘생활, 만사에 치밀하고 조직적인 독일청년의 특질」, 『별건곤』 21호, 1929. 6.
_____, 「이태리, 순교자 백년기념대제례성관, 기독교의 성대한 기념제 광경」, 『삼천리』 6호, 1930. 5.
_____, 「시체의 「벨당」, 구주대전의 고전장 기행」, 『삼천리』 8호, 1930. 9.

- 나혜석, 「쏘비엠토시아행」, 『삼천리』 4권 12호, 1932. 12.
 _____, 「СССР」, 『삼천리』 5권 1호, 1933. 1.
 _____, 「백립과 파리」, 『삼천리』 5권 3호, 1933. 3.
 _____, 「꽃의 파리행」, 『삼천리』 5권 4호, 1933. 4.
 _____, 「백립에서 룬돈까지」, 『삼천리』 5권 9호, 1933. 9.
 _____, 「열정의 서반아행」, 『삼천리』 6권 5호, 1934. 5.
 _____, 「태평양 건너서」, 『삼천리』 6권 9호, 1934. 9.
 _____, 「이태리미술관」, 『삼천리』 6권 11호, 1934. 11.
 _____, 「이태리미술기행」, 『삼천리』 7권 1호, 1935. 1.

2) 소설

- 방인근, 『방랑의 가인』, 계몽사, 1951.
 박계주, 「순애보」, 『매일신보』, 1939.1.1-6.17.
 김남천, 「사랑의 수족관」, 『조선일보』, 1939.8.1-1940.3.3.
 이효석, 『벽공무한』, 박문서관, 1941.
-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김려실,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13호, 2004
 김중철, 「근대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 『우리말글』 33호, 2005.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유학생 기행문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2호, 2004.
 김현주,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학』, 소명출판, 2004.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박천홍, 『매혹의 절주, 근대의 횡단-철도로 돌아본 근대의 풍경』, 산처럼, 2003.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연구」, 『어문학』 86호, 2004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24호, 2004.
 우미영, 「시각장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근대 초기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2권 4호, 2004.
 _____, 「서양 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 구성 방식-나혜석·박인덕·허정숙의 서양 여행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호, 2004.
 이미림, 「<벽공무한>의 여행모티프와 유희적 노마드」, 『현대소설연구』 26호,

2005.

-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28, 2005.
- 차혜영,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면 형성경로」, 『국어문학』 137호, 2004.
- _____,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1920년대 해외 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4호, 2004.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2002.
- Bhabha, Homi K,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 Brooks, Peter,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and the Mode of Excess*, N.Y: Bolumbia Univ. Press, 1984
- Said, Edward,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창, 2002.
- _____,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 Schwartz, Vanessa R., 노명우·박성일 역, 『구경꾼의 탄생』, 마티, 2006,
- Wang, Ning, 이진형·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2004.
- 吉見俊哉, 이태문 역, 『박람회-근대의 시선』, 논형, 2004
-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K C I

The Enjoyment and Narrative Appropriation to the Travel Culture in the Colonial Period

Kwag, Seung-Mi

This essay considers how the culture of travel, in *Chosun* under in colonial system, which mainly takes roles in process of the formation of modernity had been enjoyed in everyday life and appropriated in narratives. Be systemized for teaching the logic of a colonial policy by *Japan*, travel had been usual culture in *Chosun*. And the people in *Chosun* recognized tour as an index of modern life. The experience of travel in the Occidental, *Abroad Travel Literature*, was both interpreted by modern subject eye and the moment of taking their bearings not as modern subject but as an Oriental and people under colonial rule. For these factor, travel in the fictions functioned exotic interests and appropriated self-recognition as *the other*.

Key Words

travel, Travel Literature, modernity, colony, modern subject, vulgar fiction, identity

* 위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되어,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